

# 장수 호국보훈수당 지급 확대

### 2019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 월 8만원으로 인상

장수군은 올해 호국보훈수당 인상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되며 약 120명이 증가한 715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배우자 및 자녀 제외) 사망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현충일 추념식,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지원, 보훈의식 확산과 선양을 위한 행사 등 예산을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장수군은 올해 호국보훈수당 인상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대폭 늘려

### 일반장학금 3월 15일까지, 고향사랑장학금은 하반기 별도 신청·접수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재단은 상반기 일반 장학금으로 120여명에게 2억원을, 하반기 고향사랑장학금으로 260여명에게 5억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총 380여명에게 7억2천만원을 지급한다.

장학재단은 지난 해 179명에게 3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고향사랑장학금으로 인해 200여명에게 4억1000만원을 더 지급한다.

고향사랑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

들이 고향에서 중·고등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학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며, 장학금으로 선정되면 연 200만원씩, 4년제 대학 기준으로 1인당 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하반기에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 일반장학생 접수는 3월 15일

까지이며, 4월 중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 뒤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063-430-2514, 2231)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폐암 무료검진 진행

무주군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폐암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최첨단 64채널 전산화단층촬영기계를 이용한 흉부 C-T 촬영으로 진행하며 만 55세부터 만 74세 사이의 흡연자와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폐암 무료검진 수검을 희망하는 무

주군민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320-2331)로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김희석 원무팀장은 "폐암은 각종 암 중 사망자수 1위, 주요 암의 5년 상대생존율에서도 두 번째로 낮은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라며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폐암 무

료검진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 55세~74세 인구는 7천여 명으로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 이장회의를 비롯한 군 홈페이지 등 매체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자와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상자들에게도 개별 SM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폐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폐암 무료검진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설맞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24일까지 무주군청 후정에서 열린다.

# 무주군, 설맞이 직거래장터 열어

24일까지 군청 후정서 진행

무주군은 설맞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24일까지 무주군청 후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직거래 행사에는 6개 읍면 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벌꿀과 도라지, 더덕, 사과, 버섯, 한과, 꽃감, 홍삼, 천마, 인삼 등 선물용 상품을 비롯해 참기름, 들기름, 청국장, 고사리 등도 판매가 돼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한 모 씨는 "지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 생산자들이 직접 가져와 판매를 하니 믿음이 가서 구입을 했다"라며 "주변에도 알려서 많이들 이용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직거래 상품들은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택배(무료) 서비스도 제공해 원하는 곳까지 보낼 수 있다.

무주군 농축산유통과 이상목 과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상품을, 농가들에게는 소득을 안기기 위해 장터를 마련했다"라며 "좋은 물건과 서비스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반딧불 사이버 직거래장터(www.mjl614.com - 전 품목 무료 택배)에서도 품목별 작목반, 농가들과 직거래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구입할 수 있으며 전화(063-320-2770/063-322-0278)로도 문의와 주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노인의치 '틀니' 사업 지원 진안군보건소, 2월부터 접수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의치(틀니)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로 약 15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로 구강검진 시 의치(틀니) 장착이 가능한 어르신이다.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편약만 시술받은 경우에는 반대편 편약은 신청 가능하다.

완전 의치의 경우(1인 편약기준)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의치 시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보철(치대치) 3개까지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노인의치 지원을 위해 1월 중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시술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노인의치사업 홍보와 시술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술기관에 의뢰하고 의치제작 종료 확인 후 시술료 지급과 사후관리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는 위탁시술 후 1년은 시술기관에서 4년은 보건소에서 비용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구강보건실) ☎063-430-8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농업회의소 설립 설명회

장수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원, 농협중앙회 장수군 지부 김태호 지부장 등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의소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성규 지역농업네트워크 실장이 농업회의소의 설립 필요성과 해외사례, 발전과제 등을 설명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산업 위축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다. 군은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오는 2월 조례 제정 및 농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올 하반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장은 "농업회의소는 농촌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활한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사고 사망시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진안군은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은 올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외에도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추가했다.

또한 사고 사망 시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이번 가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안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